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다.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에 의해 생기고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 ① 덕은 인간의 이성적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 ② 상황에 적절한 행위를 파악하려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 ③ 삶의 궁극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
- ④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진리에 대한 관조가 필요하다.
- ⑤ 도덕적 덕을 갖추려면 유덕한 행위의 반복적 실천이 필요하다.

7.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K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li> <li>○ 우리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포로부터 더 자유로워진다.</li> </ul>
(나)	K는 요즈음 몹시 힘들다. 자주 불안함을 느끼며,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기 때문이다.

- ①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주체적으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세요.
- ②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 ③ 이성을 통해서 정념 발생의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세요.
- ④ 신앙심을 깊게 하고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철저히 지키세요.
- ⑤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8.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쾌락과 고통에 대해 자연은 무관심하다. 따라서 자연의 이성과 똑같은 이성을 갖고자 하고 자연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또한 쾌락과 고통에 무관심해야 한다.

을: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 나면 쾌락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된다.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쾌락이다.

- ① 신과 인간을 관통하는 이성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는가?
- ②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하는가?
- ③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④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 ⑤ 자연적인 욕구를 모두 버려야만 도덕적인 삶이 가능한가?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아버이를 섬기는 것은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인데, 나의 지(知)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어찌 행(行)을 뒤로 미루겠는가. 지와 행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을: 아버이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미 행이다. 아버이를 섬기는 것이 곧 행이며 지의 완성이다.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 학생 답안

갑은 ㉠ 지와 행에는 선후의 구별이 있다고 보았으며, ㉡ 사람은 배우지 않더라도 도덕적 앎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지와 행은 본래 하나라고 보았으며, ㉣ 사람은 배워야만 도덕적 앎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지와 행의 일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가)의 갑은 중국 사상가, 을은 한국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그런 것이니 우왕과 겉왕이 다르지 않다. 성(性)은 주어진 것이어서 배우거나 일삼을 수 없으나, 예의(禮義)는 성인이 만든 것이어서 배워서 할 수 있고 일삼아서 이룰 수가 있다.

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 기질(氣質)의 성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지닌 것이고, 도의(道義)의 성은 사람에게만 있다. 하늘은 사람에게 덕을 좋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Start[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B -- 아니오 --> C{C}
                C -- 예 --> E[을의 입장]
            
```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사람은 성이 악하지만 선을 행할 수도 있는가?
- ② A: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기질에 따라 결정되는가?
- ③ B: 사람의 성과 동물의 성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가?
- ④ B: 사람에게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⑤ C: 사람의 고유한 성은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가?

#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목적이라는 것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정직, 근면, 정의 등도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적이 아니라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들이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윤리와 도덕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	✓		✓	
지식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			✓	✓
선한 쪽으로 진보하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다.			✓	✓	✓
도덕적 선은 현실적 삶과는 무관한 가치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2.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에게

갑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기(氣)이며 측은의 근본은 인(仁)이라 하였고, 발(發)하는 것은 기이며 발하는 소이(所以)는 이(理)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현상으로부터 본원(本源)을 본 것입니다. 한편 을은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기질과 섞어 말하지 않았고, 사단(四端)을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본원으로부터 다양한 현상을 본 것입니다.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본다.  
 ② 갑은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③ 을은 사단을 칠정에 포함되는 선한 것으로 본다.  
 ④ 을은 이와 기는 각각 발할 수 있지만 함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사단은 본성이지만 칠정은 감정이라고 본다.

1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철학은 신앙이 전제하고 있는 진리들을 증명하는 데 유익하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신의 계시에 따른 가르침과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을: 철학적 탐구가 내 삶에 깊은 의미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된 자신이 되기 위해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 ① 갑: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종교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갑: 참된 신앙을 가지면 완전한 행복이 현세에서도 실현된다.  
 ③ 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④ 을: 인간의 모든 절망은 합리적 사유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⑤ 갑, 을: 도덕적 삶만으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p> <p>을: 정의의 원칙은 시민들이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p>병: 정의의 원칙은 과정적 원칙이다. 취득, 이전, 시정의 원칙은 과정을 명시할 뿐 별도의 정형적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p>
(나)	

< 보기 >

ㄱ. A: 독점만 사라지면 다원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가 된다.  
 ㄴ. B: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ㄷ. C: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부정적이다.  
 ㄹ. D: 업적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배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인의(仁義)를 실행하여 사람의 마음을 달래려는 것은 타고난 본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도구를 가지고 바로잡으려는 것은 타고난 덕을 해치는 것입니다.</p>	<p>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버리는 것 [自棄]입니다. 인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할 바른 길입니다.</p>
--	--

< 보기 >

ㄱ. 성(性)을 변화시켜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가?  
 ㄴ.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만물은 동등한가?  
 ㄷ. 좋은 제도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는 필수 요소인가?  
 ㄹ. 사람은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가능성을 타고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서양 사상이자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이익 때문이다.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은 정치 사회 속에서 향유될 수 있으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획득될 수 없다.  
 을: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각자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서로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병: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권력 아래 있을 때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 ① 갑은 이익이 없어도 복종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을은 명시적인 동의로만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자연법만으로는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병과 달리 인간을 자기를 보존하려는 이기적 존재로 본다.
- ⑤ 병은 을과 달리 정부를 사람이 만든 유익한 권력기구로 본다.

17. 다음 대화의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무도(無道)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을: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왕께서 선하고자 하면 백성도 선하게 될 것입니다.  
 갑: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치의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요?  
 을: 명분을 바로잡는 것[正名]입니다.

- ① 백성의 소박한 본성 실현을 위해 도덕규범을 버려야 한다.
- ②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자가 인격을 닦아야 한다.
- ③ 백성의 믿음을 얻으려면 법(法)에 따라서만 통치해야 한다.
- ④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兼愛] 한다.
- ⑤ 도(道)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18.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분업을 통해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가 국부의 증대로 이어진다.  
 을: 기계 사용과 분업의 증대로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가장 단순한 동작만을 하게 될 뿐이다. 노동자의 노동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노동자는 부르주아 계급의 노예로 전락한다.

- ① 갑은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일부 생산 수단의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19.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서양 화폐를 유통시키고, 무분별한 욕망 표현과 명분도 의리도 없는 논의를 허용하면 서학에 빠져들어 돌이킬 새도 없이 오랑캐나 금수가 된다.  
 을: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한 올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어 다만 제 몸만 위하여 빌 따름이다. 그들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병: 서양의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고, 동양의 도는 천하에 홀로 우뚝하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이	~에게	반론
①	갑	을	외세에 맞서기 위해 유·불·도의 융합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갑	병	유교의 도덕 체계를 버려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	병	새로운 이상 세계의 도래는 내세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	갑	서양 기술의 수용과 유교적 질서의 유지가 양립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	을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해 서양 종교의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0. (가),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이 대표자 선출이라는 기본적인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등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나)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이며, 엘리트들이 대중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치적 지배는 정치가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의 역할은 정치가를 선출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 ① (가)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 ② (나)는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소수에 의해 정치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민은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국민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